Proceedings of Conference on Business Venturing, Spring 2019
Apr. 26, 2019, pp.87-90

강원도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윤지원*
연세대학교 정경·창업대학원 석사과정

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강원도 지역의 경우 전국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10인 미만의 사업체와 주로 도소매 숙박업이 주를 이루는 영세한 산업구조로 인한 고용불안과 일자리 질 저하로 상대적 학력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부족함에 따라 청년층의 높은 전출률을 초래하고 있다. 강원도 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문제로 이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도내 청년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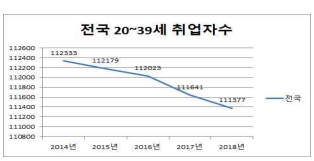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지역의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한 창업성과를 분석하고 청년창업자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상관관계를 끼쳤는지에 대하여 연구하려고 한다. 선행논문에서의 창업지원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 창업지원사업과 창업성과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확장하여 후속지원에 대한 영향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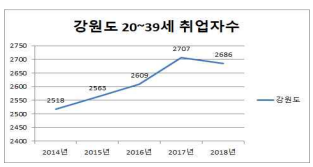
핵심어: 강원도, 청년창업, 일자리, 창업성과

Ⅰ. 서론

청년실업과 구직난은 매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동안 수많은 청년 일자리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오며 청년층의 고용 지표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9년 전국 고용률 58.8%에서 2018년 60.7%로 1.9% 증가하였다. 2017년 강원도의 경우에는 61%로 대폭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표상으로는 고용률이 개선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지만 20~39세 사이의 청년 취업자수는 2014년 112,333명에서 111,377명으로 오히려 956명 감소하였다. 강원도의 경우, 고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던 2017년은 전년대비 98명 정도 상승하였지만 2018년에는 다시 하락하였다.

<표 1> '경제활동인구조사'[1)]





사실상 비정규직, NEET족(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등 잠재적 경제활동 참가인구를 고려한다면 높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윤윤규, 2019).

강원도의 경우에도 2018년 실업률은 전국 3.8%대비 2.9%로 나타났고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으로 보아 타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18년도 강원도 전출인구수는 220,252명 나타나 일자리 증가보다는 지역 청년층의 지속적인 역외유출로 인간 결과로 추정한다. 특히,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층 전출률은 43.7%로 20대의 전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20.1%인 대부분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인구이동통계). 결국 강원도 내 고학력 구직자의 일자리 부족에 따른 구조적 요인으로 예상할 수 있다.

노동경제학에서 보았을 때 지리적 이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이 비용을 초과할 경우 개인은 지리적 이동을 결정한다고 설명한다(Borjas, 2014). 상대적으로 기회나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낮은 청년층이 중년층보다 지리적 이동, 주거지에서 이동하는 전출 성향이 큰 것으로

* yunnjw@naver.com
1) 자료 : 통계청(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나타났다. 이는 지리적 이동에서 편익과 비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Greenwood, 1997).

2017년 통계청 지역별 임금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지역은 평균 임금은 서울지역 대비 84만원이 낮고, 전국평균 대비 41만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이 89%이상을 차지하고 청년 일자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조업은 5.6%로 전국에서 제조업 비중이 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10인 미만의 사업체는 93.1%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전국 사업체조사). 결국 고용불안이 내재하고 있으며 상대적 학력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부족함에 대한 일자리 질 저하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강원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표 1>과 같이 청년창업 발굴·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강원도 청년창업 주요사업

구분	대상	사업내용
창업동아리 활성화	대학생	아이템 개발비, 교육, 멘토링 등
창업선도대학	예비·초기(1년)	시제품 개발, 마케팅 활동 등
청년창업 프로젝트	예비·초기(1년)	창업자금, 컨설팅 등 단계별 지원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	예비·초기(3년)	시설·장소 제공, 컨설팅 등
청년창업 사관학교	예비·초기(3년	창업화 자금, 교육, 컨설팅 등
창업 스타기업 성장지원	1~7년	제품, 비즈니스 모델 개선 마케팅 등
창업도약패키지	1~7년	사업화 자금, 교육, 컨설팅 등
우수 스타트업 일자리 지원	1~7년	청년 인재 급여 일부 보조

자료 : 강원도청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지역의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한 창업성과를 분석하고 추진사업이 유의미한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선행논문에서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박남규 외, 2015)는 것과 정부지원서비스가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김상순 외, 2012)는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이 유의미한 관계를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영향관계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배경

2.1. 자금지원

창업지원금은 정부에서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예비 창업자 또는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크게 지원자금, 출연자금, 융자자금, 투자자금으로 구분한다(임승준, 2016). 정부 지원사업의 경우 창업화를 위한 자금지원으로 창업 초기자금과 시설투자, 운전자금 등 융자지원 자금, 간접투자 방식으로 민간투자 기관과 정부의 펀드 조성으로 지원하는 벤처자금이 있다(서성열 외, 2017). 이미 선행논문에서 자금지원은 창업자의 자금조달능력은 사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순 외, 2012). 정부지원자금의 효과는 창업 지원기업의 매출 및 고용에 있어서 높은 상관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태 외, 2012). 또한,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유무에 따른 분석결과 매출액 현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진흥공단, 2014). R&D단계 이후 창업자금의 부족으로 시제품 제작, 양산을 위한 장비, 마케팅 활동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Hall & Bagchi-Sen, 2002).

이러한 선행연구결과에 따라 창업기업에 자금지원은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가설 1: 강원도 청년창업자의 자금지원은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기술지원

지식재산권이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에 대한 권리로 특히, 그중에서도 특허에 대한 필요성으로 기술창업기업에 있어서 기업에 있어서 경제적이고 향후 권리에 대한 행사로 예방적이고 전략적 경영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활동임을 강조하였다(이태호, 1996).

정부의 R&D지원,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혁신성과가 높아지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이병헌 외 2014). 권미영, 정해주(2012)는 기술창업기업에 있어서 기술자원, 기술능력을 보유함에 있어서 기업의 존폐여부, 성과도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Lee 외(2011)와 이장우 외(2007)는 기업성과와 기술능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늪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술에 관한 지원은 결국 기술능력을 높이고 성과창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 2: 강원도 청년창업자의 기술지원은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교육지원

교육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창업자의 역량강화, 사업개발을 위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Garavan & O'Cinneide(1994)은 기업가정신, 상황분석, 사업계획 수립 능력, 환경변화 대비, 창업가

적인 자질 및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 하였다.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자의 사례별 교육을 통해 분석적 사고역량을 키워 성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Ronstadt, 1985). 특히,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에 대한 불확실성, 부정적인 인식 해소에 도움을 끼친다(Kirzner, 1997). 창업교육은 창업에 대한 태도와 의지에 있어서 유의미한 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en, Greene & Crick, 1998).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창업교육은 창업의지와 태도에 있어서 관계가 있고 결국 창업성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가설 3: 강원도 청년창업자의 교육지원은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후속지원

선행연구에서 기술사업화 단계에서 창업기업은 정부자금 지원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였다(전인오, 2012). 기업의 단계별 지원은 창업기업의 성장을 가속화 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수혜대상 기업의 후속적인 추가지원은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가설 4: 강원도 청년창업자의 후속지원은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창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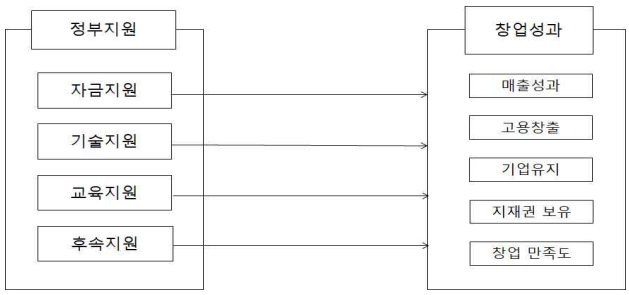
창업기업의 성과를 알아 볼 수 있는 척도는 보유자원과의 원인과 결과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파악 할 수 있다(Eisenhardt & Martin, 2000; Moullin, 2003). 성과 측정요소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활용하였다(Stuart & Abetti(1987). 이재훈(2013)은 창업 지원사업이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이를 통한 창업가 만족도와 창업성과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성과에 대하여 재무적 성과로 매출, 고용창출, 사업의 생존여부로 알아보고 비재무적 성과로 지식재산권 보유정도, 창업자 만족도, 창업자 역량 등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강원도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이 자금지원, 기술지원, 교육지원, 후속지원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인으로 창업성과로 하였다. 재무적으로는 매출성과, 고용창출, 기업유지여부로 조사할 것이고 비재무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정도, 창업만족도 등으로 하여 정성적인 조사를 통하여 창업성과로 연구할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표현하는 변수들의 용어들을 연구목적에 맞게 <표 2>와 같이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연구변수	조작적 정의		관련문헌
독립변수	자금지원	(예비)창업자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보조)이라 정의		박남규 (2014)
	기술지원	지재권 컨설팅, 인증 획득 유무로 정의		
	교육지원	정부에서 운영하는 창업 전반적인 교육이라 정의		이병권 (2014)
	후속지원	청년창업 지원사업 수혜 이후 후속으로 지원받은 건수, 정부지원금으로 정의		
종속변수	창업성과	재무적	매출, 고용창출, 기업존폐 여부로 정의	김완재 (2007)
		비재무적	지재권 보유 여부, 창업자 만족도로 정의	이영주·양영석 (2018)

3.3.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강원도 '청년창업 프로젝트' 수혜기업의 데이터를 기반하여 조사할 것이다. 청년창업 프로젝트는 강원도 내 만18세에서 만39세 사이의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창업자를 지원하는 '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 육성사업'과 선정이후 3년간 생존기업에 대하여 후속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창업 프로젝트 사후관리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프로젝트의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할 것이다.

Ⅳ. 결론

선행연구에서 정부지원사업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성과의 종속변수와 매개변수로 후속지원을 검증함으로써 선행연구 모형에서 확장성을 두는데 의미가 있다.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강원도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 교육지원, 기술지원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로는 청년창업 프로젝트에서 후속지원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강원도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중인 청년창업 정책에 있어 실효성을 파악하고 장기적, 체계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강동우(2019). 청년층 지역이동의 특징과 지역 특성의 영향. 노동리뷰, 167, 47-60.

권미영·정해주(2012). 기업가, 기술 및 네트워크 특성이 기술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7(1), 7-18.

김상순·양영석·김종원(2012). 정부의 창업지원제도가 창업과정특성과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9-211.

김수혜(2019). 한국과 영국 니트족 유입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비교연구. 한국청소년연구, 30(1), 185-217.

김순태·민경명·오상영(2012).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성과분석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3(4), 1594-1602.

김완재(2007). 창업자 특성과 소기업 창업성과 간 관계에 대한 연구. 한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남규(2014). 창업지원정책 및 창업가 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서성열·김생수·윤종록(2017). 청년 창업지원시스템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421-440.

서성열·윤종록·임아름(2019). 창업지원시스템에 대한 청년의 인식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리뷰, 10(1), 49-67.

윤윤규(2019). 청년고용의 현실과 정책방향. 노동리뷰, 3-4.

전인오(2012). 창업보육기업의 기술사업화에 따른 기술역량이 지원과 경영성과단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9), 325-339.

중소기업진흥공단(2014). 청년전용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분석 및 효율화 방안 최종 보고

이병권(2014). 창업동기 요인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병헌·이수욱·위세안(2014).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9(5), 157-171.

이영주·양영석(2018). 창업가가 인식한 정부창업지원사업 중요도와 만족도 및 기대충족도가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3(1), 31-41.

이장우·허재진·장건(2007). 중국 벤처기업의 성과요인: 한국 벤처기업과의 비교연구,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2(3), 313-343.

이재훈(2013). 대학생 창업의도에 개인적 특성, 대학 및 사회의 지원적 특성 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금오공과대학교

이태호(1996). 기술개발과정에서의 특허활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기술창업가이드(2015)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임승준(2016). 창업지원사업이 청년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실효성 분석.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2019).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2019). 국내이동통계

통계청(2019). 전국 사업체 조사

Borjas, G. J.(2014). 노동경제학, 시그마프레스, Biotechnology Industry", Technovation, 22(4), 231-244.

Chen, C. C., Greene, P. G., & Crick, A.(1998).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295-316.

Eisenhardt, K. M., & Martin, J. A.(2000). Dynamic Capabilities: What are The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1(10), 1105-1121.

Garavan T. N., & O'Cinneide, B.(1994).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a review and evaluation-Part 1.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18(8), 3-12.

Greenwood, M. J.(1997), Internal migration in developed countries, Handbook of Population and Family Economics, Volume 1, Part B, Elsevier, 647～720.

Hall, L. A., & Bagchi-Sen. S.(2002). A Study of R&D, Innov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in the Canadian

Kirzner, I. M.(1997). Entrepreneurial Discovery and the Competitive Market Process: An Austrian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5(1), 60-85.

Lee, C., Lee, K. & Pennings, J. M.(2001), Internal Capabilities, External Networks, and Performance: A Study on Technology-Based Ventur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 615-640.

Ronstadt, R.(1985) The Educated Entrepreneur: A New Era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is Begining,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Summer. 7-23.

Stuart, R., & Abetti, P. A.(1987). Start-up ventures: Towards the prediction of initial suc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3), 215-230